

《내 친구 빈센트》

참된 인간을 꿈꾸다

글_허아람

몸이 아플 때 먹는 약처럼 영혼이 상처 입었을 때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 같은 책이 제게는 몇 권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외우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자주 만지다가 표지나 속지가 닳아버린, 그런 소중한 책 가운데 한 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말이 많아질 것 같은 이 책을 생각하면 마치 제게 또 하나의 친구를 소개하는 것 같은 뿌듯함이 생깁니다. 책 제목에서 보듯 이 책의 내용은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빈센트를 사랑한다. 형제처럼 부모처럼 친구처럼 애인처럼 연인처럼. 나는 그를 존경하거나 숭배하지 않는다. 그는 위인도 천재도 거장도 대가도 사표도 스승도 도사도 아니다. 그는 언제나 모자랐고 약했으며 슬펐다. 지독하게 못났고 어설프으며 서글펐다. 나도 그렇기에 그를 사랑한다.” (《내 친구 빈센트》, p21~23)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수없이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통의 자연과 보통의 사람들을, 보통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보통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린 빈센트를, 보통 사람의 눈으로 좇아간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지만 결코 이 책은 보통의 저자가 보통의 우정과 사랑으로 쓴 글이 아님을 조금만 읽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다른 시대와 공간을 살았지만 죽은 친구의 누명을 벗기기도 하듯 철저한 고증을 통해 친구가 살았던 시대와 삶을 집요하게 파헤쳐 놓은 이 책은 세간에 ‘스스로 귀를 자르고 결국엔 자살한, 태양과 같은 정열의 미친 화가’로만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를 새롭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으면 저자는 이렇게 집요하게 그러나 지성적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빈센트가 살아 돌아와 저자의 이 평전을 읽게 된다면 “당신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미술사에서 얘기하는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 반 고흐가 아닌 노동자 화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그가 존경했던 작가와 다른 예술가들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세계는 분명 ‘현실과 진실 그리고 자연’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빈센트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 밀레의 그림을 모사한 작품을



박흥규 지음 | 소나무 | 335쪽 | 값 18,000원

●이 글을 쓴 허아람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0년도부터 독서토론 공동체인 아람샘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8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을 열고 책읽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꾸리면서 《my beautiful girl, indigo 인디고 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공리)를 펴냈다.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삶과 예술을 조망한 저자의 또 다른 책 《빈센트가 사랑한 밀레》에서도 농민화가 밀레의 전통을 이어 받은 노동자 화가 빈센트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술, 그것은 자연에 인간이 더해진 것이다” “자연, 현실, 진실, 거기에서 예술가는 감정과 해석, 개성을 끄집어내고, 표현하며, 분출시키고, 뒤섞으며, 해방시키고, 빛나게 한다” 밀레의 그림을 보고 테오에게 쓴 편지의 일부에서도 보듯 빈센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철저히 고뇌한 지성인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림으로 실천한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제가 빈센트를 사랑한 이유를 저자의 글에서 인용하자면 다음의 부분입니다. 저자는 두 번째 책에서 책의 시작과 마무리를 아예 ‘내 친구 빈센트에게’ 라는 편지형식으로 씁니다.

“왜 너의 그림이 사랑받는지 아니? 내가 존경하는 존 버거의 말처럼 너는 일상적인 것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사랑하며 그림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야. 특히 아무런 이데올로기도 없이, 관념적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없이 그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의 의자는 의자이지 왕좌가 아니고, 너의 구두는 너무나 걸어 다녀 낡아빠졌고, 너의 해바라기는 그냥 식물이지 종교적인 성화가 아니고, 너의 붓꽃은 곧 피어났다가 질 것이고, 너의 우체부는 우리에게 편지를 배달할 것이야. 너는 그 모든 실존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현실화하고 완수했지. 그리고 너는 우리의 사랑하는 화가가 되어 일상의 부드러움에서 오는 강인함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여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야”(《빈센트가 사랑한 밀레》(박홍규 지음 | 아트북스 | 235쪽 | 값 16,000원) p220~221)

그리고 저자는 “나도 너의 자연을 생각하며 ‘현실과 진실’의 씨를 뿌리고 삼질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자신의 생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 책을 다시 읽는 동안 저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빈센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남긴 편지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생 테오에게만도 688통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친구 두 명과 지금까지도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스승과 나누었던 편지가 수백 통이 넘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보낸 편지가 훨씬 많은 이유는 그 당시 저는 학교생활의 힘들과 외로움을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 편지 쓰는 기

쁨으로 건넸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그때의 저에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즘은 저는 수백 통은커녕 짧은 메일에도 답장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에게 예쁜 편지봉투에 정성스런 글씨로 편지 보내는 이가 있다면 밤새워 긴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아직 저에게 많은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편지 받는 사람보다 편지를 쓰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되고 편지 받을 사람과 영혼의 교감을 나누게 된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내 친구들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나의 소중한 친구는 누구인가?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우정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밀레를 평생 스승으로 삼은 빈센트, 다른 시대와 문화를 넘어 빈센트를 사랑한 저자 박홍규, 그들은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네 친구에 대해 들려준다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아시리아 격언’ 이 실려 있는 《FRIENDSHIP - 친구네 집에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정현종 옮김 | 이레)의 우정을 담은 아름다운 사진들은 각박한 우리의 일상에 단비 같은 촉촉한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불멸의 아티스트 17명의 초상》(박명옥. 그린비)를 보면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들이 당대와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치고 예술로 그것을 이겨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하는 예술 분야 수업에서 에프게니 키신의 어린시절과 그의 연주 실황을 담은 DVD를 다섯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열정 앞에서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실제 공연은 본 적 없지만 화면 속의 키신이 나와 동갑이라는 사실만으로 나를 그렇게 기쁘고 들뜨게 했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신이 여섯 살에 만나 20년이 넘도록 스승과 제자이면서 친구로 함께 하고 있는 그의 스승 안나 카를로 교수의 하얀 머리칼과 어진 미소도 밤마다 떠올립니다. 나는 내 삶이 어디로 유유히 흘러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갈지 매순간 생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인간을 꿈꿉니다.

내 친구이자 스승인 빈센트가 박홍규가 키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